

예이츠의 요정과 『삼국유사』의 도깨비 연구*

유 욱 례

우리말 요약: 예이츠의 시에 나오는 요정과 일연의 『삼국유사』의 도깨비는 유사한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요정과 도깨비 이미지를 비교해 보았다. 요정과 도깨비는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춤을 춘다. 이들은 춤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표현하면서 열망과 욕망을 이미지로 사용하였다. 예이츠는 요정의 세계를 ‘무의식의 열망’으로 표현했지만, 일연은 ‘무의식의 욕망의 초월’로 비유했다. 두 시인은 요정과 도깨비를 다르게 묘사하는데, 예이츠는 요정을 무의식의 열망이미지로, 일연은 도깨비를 무의식의 욕망의 초월이미지로 시에 담아내었다.

주제어: 예이츠, 일연, 이미지, 요정, 도깨비

저자: 유육례는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조교수이다.

Title: A Study on Yeats's Fairies and Ilryeon's Dokkaebi in *Samguk Yusa*

Abstract: Fairies in Yeats's poems and dokkaebi in Ilryeon's *Samguk Yusa* share similarities. This study compares the images of the fairy and the dokkaebi. Fairies and dokkaebi dance, moving around in groups. So the two poets describe fairies and dokkaebi differently: Yeats's sing about fairies in the imagery of aspirations, while Ilryeon's are the imagery of the desires of the unconscious in their poems.

Key words: Yeats, Ilryeon, image, fairy, dokkaebi

Author: Yukrye Yu is Professor in the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61452, Korea.

E-mail: yyk5211@hanmail.net

www.kci.go.kr

I. 서론

요정과 도깨비는 인간들에게는 신비스러운 인간과 동고동락한 존재이다. 요정은 인간에게 요술을 부린다. 설화에서 요정들과 도깨비는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적을 행하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W. B. Yeats(1865-1939))의 시에 나오는 요정과 한국의 일연(一然 (1206-1289))의 『三國遺事』에 나오는 도깨비는 아주 유사점이 많다. 요정과 도깨비의 이미지는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의 염원을 전달한다. 두 작가들은 이러한 요정과 도깨비를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들으면서 성장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작품에 내재화하여 설화를 복원하였다.

예이츠와 일연은 신비로운 요정과 도깨비의 전설과 신화를 작품으로 창작하여 고유한 전통을 되살린다. 예이츠는 젊은 시절부터 아일랜드의 민속, 켈트의 전설과 신화에 심취하여 그의 시에 요정의 이미지를 재현한다. 일연은 고려의 아름다운 설화를 수집하여 그의 작품에 도깨비의 이미지를 재창조한다. 그는 이 도깨비의 이미지로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예이츠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현대의 최고 시인이며, 일연은 고려시대에 유명한 학승으로 선시의 대가중의 한 사람이다. 이러한 두 작가들은 설화와 전설을 작품의 제재로 사용하여 아일랜드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부흥시키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예이츠의 「요정의 나라를 꿈꾼 남자」, 「미래의 아일랜드에게」, 「아일랜드 소설가들의 이야기책에 부치는 시」, 「대기의 요정」 그리고 「달랠 수 없는 요정의 무리」와 일연의 「도화녀와 비형량」, 「처용랑과 망해사」의 시를 분석하여 이 두 시인이 이미지로 사용한 요정과 도깨비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예이츠의 요정 시

아일랜드의 날씨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여름에도 영상 14도에서 17도까지의 온도를 유지한다. 여름에도 거의 매일 한번 정도는 비가 내린다. 겨울에도 영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날씨이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요정이 안개나, 혹은 비속에서 금방이라도 나올듯한 것을 느꼈을 것이며, 실제로 요정을 본 사람들도 있다고 전해진다. 예이츠도 『여명의 아침』에서 슬라이고, 골웨이, 녹나리, 벤 불벤에 실제 사람들로부터 요정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록하였다. 아일랜드의 요정이야기들은 수천년 동안 음유시인들이 노래했고, 그동안 이야기와 노래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다. 예이츠는 이러한 전설과 신화가 넘쳐나는 슬라이고(Sligo)에서 성장하면서 요정이야기를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로부터 자주 들었다. 그는 벤 불벤 산기슭에서 금방이라도 요정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행운을 속삭여 줄 듯한 정경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이처럼, 그는 레이디 그레고리(Lady Greogory)와 함께 아일랜드 서쪽지방의 설화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지방에 요정이 존재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 설화를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요정에 관한 시로 창작한다.

요정은 신비한 존재로서 설화 속에서 나타난다. 그중 서유럽의 여러나라에 광범위하게 수용된 것은 요정에 관한 것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요정은 시드로 불린다. 아일랜드의 요정들은 인간보다 아주 작고 녹색 옷, 검은 옷, 줄무늬 옷, 빨간 조끼 등의 옷을 입는다. 요정은 지상에서 무리 지어서 살고 있는데, 예이츠에 의하면 바다에 사는 메로우(Merrow) 외에도 반시, 둘라한 등 혼자서 살고 있는 부류도 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요정은 대개 성격이 어둡지만 레프라혼만은 다르다. 이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요정인 레프라혼(Lepracaun)은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망치를 들고 다닌다. 신발을 만들고 있으며, 신발을 한쪽밖에 만들지 않는다. 이 요정은 빨간 삼각모자를 삐뚜름하게 쓴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금화를 땅 속에 숨겨놓고 있으며 손재주가 좋으며 망치를 가지고 다닌다. 이 망치는 한국의 도깨비가 들고 있는 방망이와 아주 유사하다.

예이츠는 「요정의 나라를 꿈꾼 남자」(“A man dreaming of a fairy country”)에서 춤추는 요정의 이미지를 노래한다.

명랑하고 기쁨에 가득 찬 상냥한 종족이
거하고 있다고,
만일 춤추는 소녀가 그의 햇빛은 발치에 머문다면
해와 달이 과일로 맺히는 것 같았을 것이라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다. (『에이즈 시 전집』 85-86)

A lug-worm with its gray and muddy mouth
Sang how somewhere to north or west or south
There dwelt a gay, exulting, gentle race;
And how beneath those three-times blessed skies
A Danaan fruitage makes a shower of moons,
And as it falls awakens leafy tunes:
And at that singing he was no more wise.

에이즈는 「요정의 나라를 꿈꾼 남자」에서 춤추는 소녀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화자는 요정의 나라를 꿈꾼다. 이 시에서 화자는 지금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고, 고통이 없는 요정의 나라로 가고 싶어 한다. 그곳은 기쁨과 환희에 찬 민족이 살아가는 곳으로 명랑하고 상냥한 민족이 사는 곳이다. 그곳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해와 달이 빛난다. 요정의 세계는 인간이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요정이 와서 데려가지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곳이다. 요정의 나라로 가기위해서는 언덕이나 나무뿌리 아래로 들어가서 요정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한다. 또 호수나 강 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곳은 자유로움이 있고, 바람을 타고 불꽃처럼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이 열망하는 곳이다. 화자는 영혼의 자유를 그리워하며 미래의 아일랜드의 대지가 살아있고, 대지 속에 있는 희망을 담고 있는 요정의 나라를 꿈꾸었을 것이다.

요정의 나라는 “그곳에서는 누구도 늙어서 교활하거나 현명해지지 않고, 그곳에서는 누구도 늙어서 경건하거나 근엄해지지 않고, 그 곳에서는 누구도 늙어서 말에 가시가 돋거나 하지 않고 친절한 말이 구속을 가져오지 않은”(『W.B. 에이즈 회곡』 95) 곳이다. 이는 화자가 조국인 아일랜드에 정교회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교에 빠지거나 그곳에 몸을 담고 있을 때 드루이드의 신앙아래 삶을 살아가는 요정의 세계를 다시 복원하고 싶은 이미지를 제시한 것이다.

「미래의 아일랜드에게」(“For the future of Ireland”)에서 화자는 달빛아래 춤추는 요정들에 대해 노래한다.

나, 데이비스와, 망간, 그리고 퍼저슨보다
 덜 평가되지 않기를,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 노래는
 그들의 노래 이상으로 다만 육체가 잠들어 있는
 그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 말하니,
 기본적인 것들은 내 테이블 주변을 오가고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을 서둘게 하여
 폭풍우와 돌풍 속에서 거칠게
 화를 돌구는구나, 그러나 정연하게 길을
 지나는 그는 분명히 눈에는 눈으로
 교환하리니 그러니 늘 사람들은 그와 함께
 붉은 장미로 가장자리를 두른
 그의 뒤를 따라가리.
 아! 달빛 아래 춤추는 요정들이여,
 드루이드의 나라여, 드루이드의 곡조요! (『에이즈 시 전집』 97-98)

Nor may I less be counted one
 With Davis, Mangan, Ferguson,
 Because, to him who ponders well,
 My rhymes more than their rhyming tell
 Of things discovered in the deep,
 Where only body's laid asleep.
 For the elemental creatures go
 About my table to and fro,
 That hurry from unmeasured mind
 To rant and rage in flood and wind;
 Yet he who treads in measured ways
 May surely barter gaze for gaze.
 Man ever journeys on with them
 After the red-rose-bordered hem.
 Ah, faeries, dancing under the moon,
 A Druid land, a Druid tune!

에이츠는 「미래의 아일랜드에게」에서 달빛아래 춤추는 요정들을 시적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이 시의 화자는 아일랜드의 수난의 시대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화자는 인간들에게 거친 폭풍우와 돌풍과 같은 고난의 삶이 닥치더라도 이에 함몰되지 말고 질서 정연한 삶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들이 이러한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달빛아래서 춤추는 요정들은 인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드루이드교는 영혼은 멸하지 않고 죽음 후 한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가르침 때문에 남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무시할 수 있고 따라서 용감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찰스 스콰이어, 49)

화자는 드루이드교처럼 활동을 한다. 드루이드교는 고대 켈트족의 사제, 교사, 법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은 공적이고 사적인 제사를 주관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공사의 분쟁을 심판해 벌을 내렸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계에서 환생한다고 믿었다. 에이츠는 이 시에서 드루이드교의 이상세계를 재현해서 현실과 이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요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요정은 현실의 고통을 이상세계의 영원불변한 행복으로 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요정들은 달빛아래 춤추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아일랜드 소설가들의 이야기책에 부치는 시」(“The story of Irish novelists”)에서 화자는 시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슬픔에 대한 요정의 이미지를 노래한다.

많은 종이 달린 푸른 가지 하나 있었다.

이 땅 스스로의 사람들이 이 비극의 에에레를 다스리던 때에,
그리고 그 속삭이는 푸른 가지에서, 요정의 고요와, 드루이드의 친절이
모든 이들의 귓가에 내려앉았지. (『에이츠 시 전집』 88-89)

There was a green branch hung with many a bell
When her own people ruled this tragic Eire;
And from its murmuring greenness, calm of Faery,
A Druid kindness, on all hearers fell.

화자는 이 시에서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슬픔의 나뭇가지에 대해서 노래한다. 켈트세계에서는 돌이나 금속으로 된 상은 거의 없고, 나무로 된 신상이 흔했다.(찰스 스콰이어, 9) 나무는 신성함을 나타내며 요정과 관련이 있으며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에이츠도 인간의 영혼과 상상력을 믿는 영혼주의자(조동열·정옥희, 7)이다. 화자는 비극의 주인공인 에레가 다스리던 때는 화자가 꿈꾸는 세계이다. 푸른가지는 십자가와 대립되는 마가목 나뭇가지일 것이다. 이 나무는 푸른 가지로서 아일랜드의 요정들은 이 나뭇가지가 있으면 날아서 집에 들어가지만, 십자가가 드리워진 집은 들어가지 않는다. 화자는 설화 속 요정의 세계를 상징이미지로 제시하여 잃어버린 조국 어머니 에에레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쳐버린 마음의 휴식을 찾고 꺼져가는 조국의 등불을 살려서 편안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했다.

「대기의 요정」(“Fairy of the atmosphere”)에서 화자는 시인의 가슴속 깊은 곳을 차지하는 요정의 무대에 대한 춤추는 이미지를 노래한다.

신랑 오드리스콜은
갈대 무리 웃자란
황량한 하트 호수를
노래하며 들오리 몰았네

그리고 그는 다가오는 밤의 물결 속에서
어둑해지는 갈대를 보며,
사랑하는 신부 브리지트의
희미한 긴 머릿결을 꿈꾸었네

노래하고 꿈꾸며 그는 들었네,
떨어지는 악사의 피리소리를
그렇게 슬픈 피리소리 다시는 없고
그렇게 기쁜 피리소리도 다시 없었네 (『에이즈 시 전집』 106-107)

O'Driscoll drove with a song
The wild duck and the drake
From the tall and the tufted reeds
Of the drear Hart Lake.

And he saw how the reeds grew dark
 At the coming of the night-tide,
 And dreamed of the long dim hair
 Of Bridget his bride.

He heard while he sang and dreamed
 A piper piping away,
 And never was piping so sad,
 And never was piping so gay.

화자는 이 시에서 신부 브리지트가 대기의 요정에 끌려가는 슬픔에 대해 노래한다. 신랑인 오드리스콜은 호숫가 갈대숲에서 들오리를 몰았고, 호수의 갈대를 보며 아름다운 신부 브리지트의 멋진 머릿결을 꿈꾼다. 그는 꿈속에서 요정의 무리를 만나면서, 신부 브리지트가 요정들과 같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본다. 요정은 붉은 포도주와 하얀 빵을 권했다. 요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요정들의 세계로 끌려가는 운명이다. 요정들은 아름다운 신부나 건강한 남자들을 데려간다고 한다. 신랑은 신부가 잘 생긴 요정의 남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난다. 꿈을 깬 신랑의 귓가에는 아련한 피리소리만이 슬픔과 기쁨처럼 울려온다. 신부는 요정에 선택받아 행복한 요정 세계로 가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어신에 방랑에서처럼 현세의 삶을 더는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슬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달랠 수 없는 요정의 무리」에서 요정들의 무리가 춤을 추고 아이들을 데려가는 슬픈 이미지를 노래한다.

다나안의 아이들은 황금세공의 요람 속에서 웃고,
 손뼉 치며, 지그시 눈을 감는다.
 송골매가 무거운 흰 날개를 펴고, 싸늘해진 심장으로
 하늘을 날을 때, 그들은 북풍을 타고 날을 것이니,
 나는 징얼대는 아가에게 뽀뽀하고 품에 꼭 안는다.
 그리고 좁은 묘지가 내 아가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울부짖는 황량한 바람,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지옥의 문을 두드려서

흐느껴 우는 많은 망령들을 그 곳으로 실어 나르는 황량한 바람,
 아 바람에 흔들이는 마음이며, 달랠 수 없는 요정의 무리는
 성모 마리아의 발치 아래 놓인 촛불보다 더 아름답구나. (『에이츠 시 전집』 110)

The danaan children laugh in cradles of wrought gold
 And clap their hands together and half close their eyes
 For they will ride the North when the ger-eagle flies
 With heavy whitening wings and a heart failen cold
 I kiss my wailing child and press it to my breast
 And hear the narrow graves calling my child and me
 Desolate winds that cry over the wandering sea
 Desolate winds that hover in the flaming West
 Desolate winds that beat the doors of Heaven and beat
 The doos of Hell and blow there many a whimpering ghost
 O heart the winds have shaken the unappeasable host
 Is comelier than candles at Mother Mary's feet

화자는 이 시에서 “천국의 문,” “지옥의 문” “황량한 바람”과 같은 시어를 사용하여 선악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서혜숙은 “에이츠는 아일랜드 요정을 무리지어 다니는 사교적인 요정과 외톨박이 요정으로 구분하고”(서혜숙, 94) 있다. 요정들은 음악과 춤을 즐기며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호사와 사치의 삶을 살아간다. 요정들은 아주 먼 곳에서 먼 길을 온다. 그들은 북풍을 타고 무리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온다. 그들은 바람을 타고 달릴 수 있고, 산위에서도 춤을 출 수가 있다. 요정들은 산모나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인간 세상에서 훔쳐가서 기른다고 한다. 여기에서 다니안의 아이들은 요정들이 자기들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하여 산모들을 납치해가기도 한다. 아이들은 요정나라에 납치되어 가서 황금으로 만든 요람에서 웃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을 잃은 엄마들의 슬픔은 피눈물을 쏟아 내린다. 이 시는 요정들의 막강한 힘 앞에 인간들은 어찌할 수 없는 힘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요컨대 에이츠의 시에 나오는 요정은 아일랜드에 설화의 인물인 요정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이 요정의 세계는 에이츠가 열망하는 곳이다. 그는 영혼이 살아 숨쉬고 상상속의 새들과 요정들이 춤을 추는 아름다운 그곳이 이 땅에 다

시 펼쳐지기를 바라는 염원과 바람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영국식민지 아래 있던 아일랜드가 독립을 꿈꾸고 바라는 세상은 고대 켈트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전통적인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품격 높은 세계를 열망 이미지로 제시했다.

III. 일연의 『삼국유사』의 도깨비

일연(一然)은 고려 희종(熙宗) 2년(1206)에 경상북도 장산(지금은 경산)에서 태어났고 9세에 무량사로 출가를 했다. 그는 최고의 고승이지만 학자이며 문학가이기도 하다. 그는 청년시절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하여 『三國遺事』를 완성했다. 그의 나이 70세 후반부터 84까지이다. 『삼국유사』는 일연이 당시에 흠어져 있는 신화·전설·민담을 채집하고 정리하고 기록한 저술이다. 『삼국유사』의 가치는 종교, 사상, 민속,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귀중한 작품이다. 특히 『삼국유사』가 중요한 것은 수많은 고대설화와 향가가 오롯이 전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단군조선이후 신라가 멸망하기까지 한역으로 전하는 작품은 「공후인」, 「황조가」, 「구지가」 등 3수가 전부이지만, 『삼국유사』에 향가 작품 14수가 실려 전해온다. 동시대에 다른 나라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작품의 양은 적지만 작품의 우수성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귀중한 작품이다. 만약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하지 않았다면 상상력과 은유가 뛰어난 설화(「도화녀 비형랑」)를 비롯하여 향가 작품(「처용가」)을 우리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일연이 존재했을 당시의 고려시대는 왕조가 가장 외적에 시달렸고, 또 몽고의 세력 밑에서 거의 자주성을 상실한 시대인 만큼 그는 당시의 현실의 고통스러움을 조국의 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조국 생각에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불교의 폐해로 인해 국가가 망하는 것을 개탄 했다. 그는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도깨비에 대해 문헌에 실린 최초의 기록은 「桃花女 鼻荊郎」과 「處容郎 望海寺」에 기록되어 있다. 도깨비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어졌을까? 도깨비

는 초자연적 존재의 하나로, 이름은 도깨비, 도채비, 돛깨비, 돛가비, 돛채비, 허깨비, 어재비, 헛깨비, 헛가비, 헛재비, 두두리, 두두을, 목랑, 목매로 불린다. 한자로 번역하면 귀(鬼), 귀물(鬼物), 귀매(鬼魅) 등으로 불린다.(김열규, 26) 도깨비의 존재는 무언가를 만드는 존재로 시작되었고 양면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도깨비가 인간을 살해할 만큼 악독하지 않고, 인간의 피에 넘어가 초자연적 힘을 이용당하는 미련함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도깨비의 모습은 하나밖에 없는 다리는 옷칠한 것같이 검으며, 키가 너무 커서 옷을 못 해 입고 백지로 가릴 곳만 가리고 있다고도 한다. 포박자(抱朴子)에도 도깨비는 발이 하나밖에 없다고 기록된 것을 볼 때 도깨비의 발이 하나라는 이야기는 고대부터 동양에 널리 퍼져 있었다. 도깨비가 발이 하나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민담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 민담과 유사하게 아일랜드의 요정 중에는 신발을 한쪽밖에 만들지 않는다는 요정 레프라혼이 있다.

도깨비에 대한 모습은 성현의 『악학궤범』에서 처용무(處容舞)를 출 때 처용 가면과 함께 쓰던 모자와 가면(假面)은 모시 베로 만들고 채색을 칠했고 귀에는 주석고리와 구슬을 달았다. 도깨비의 모습은 시대를 달리해서 묘사되는데 불교 사찰에 들어서면 동서남북의 문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민간에서는 장승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아일랜드의 요정은 작거나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도깨비의 모습은 몸집은 사람보다 크고 우락부락하게 묘사된다.

다음으로 「도화녀 비형랑」을 살펴보자.

이 해에 왕위 폐위되고 붕어하였다. 그 후 2년에 도화녀의 남편도 또한 죽었다. 남편이 죽은 후 10일이 지난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왕이 평상시와 같이 도화녀의 방에 들어와 말하기를 “네가 이전에 남편이 죽고 없으면 허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네 남편이 없으니 전에 말한대로 이제 허락하겠느냐” 물었다. 이에 그녀는 허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 부모는 “임금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딸을 왕의 방에 들어가게 했다. 왕은 7일간을 머물렀고 그동안 항상 5색 구름이 짙을 덮고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더니 7일 후에 갑자기 왕의 자취가 없어졌다. 그 뒤 그녀는 태기가 있다가 달이 차서 해산하려 하는데 천지가 진동을 하였고 한 사내아가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비형(鼻荊)이라 하였다.

國人廢之 是年王見廢而崩 後二年其夫亦死 浹旬忽夜中 王如平昔 來於女房
 曰 汝昔有諾 今無汝夫 可乎 女不輕諾 告於父母 父母曰 君王之教 何而避之
 以其女入於房 留御七日 常有五色雲覆屋 香氣滿室 七日後忽然無蹤 女因而
 有娠 月滿將產 天地振動 產得一男 名曰鼻菴(『三國遺事』, 99)

비형랑은 신라 25대 사료왕이 죽은 후에 왕이 현세로 돌아와서 도화녀와 7일 간 잠자리를 한 후에 낳은 아들이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과 산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므로 그가 도깨비로서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낮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밤에는 도깨비의 모습으로 밤을 다니는 자이다. 도깨비는 낮과 밤을 두루 다니는 자이다. 진평왕은 이 소식을 듣고 비형랑을 데려다가 길렀다.

왕은 신하들에게 매복해서 비형랑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신하들이 매복해서 엿보았더니, 비형랑이 노는 대상은 밤에 도깨비(귀물)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다. 비형랑은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다시 궁궐로 돌아오지만, 다른 도깨비들을 사라지고 없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을 왕께 고하게 된다. 왕은 비형랑에게 도깨비들을 데리고 신원사 북쪽에 다리를 놓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도깨비들은 거느리고 왕이 명령한 다리를 하룻밤사이에 놓았다. 이 사실을 보면 비형랑과 도깨비는 순간적으로 딱딱 만들어내는 행동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후대의 설화에서 도깨비가 하룻밤사이에 딱딱딱딱 짓고 만드는 존재로 묘사된다. “한국의 설화중에서 도깨비 설화는 봉건사회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신분상승이라는 꿈을 하늘에서 복과 횡재, 공짜로 생긴 노다지이다. 이러한 복과 횡재는 실현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허황된 꿈이었을지라도 일반 백성들에게 희망을 유발시킨다.”(유육례, 198) 당시에 백성들에게 도깨비의 존재는 그 소망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주며, 다리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너머의 연결고리로서 존재했다.

신라시대에는 사람들이 왕래할 때에 다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왕은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려고 비형랑을 불러서 다리 건설의 임무를 맡긴다. 이에 비형랑은 하룻밤 사이에 도깨비들과 다리를 완성하게 한다. 이 건축기사로써 도깨비는 후대로 구전되면서 “도깨비설화에서는 도깨비방망이

에 구체적으로 들어나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하면 금과 은이 쏟아지는 꿈으로 고통과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안겨주었다”(유옥례, 198) 도깨비는 「도화녀비형랑」에서는 한국인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건축기사로서의 필요한 존재로 등장하지만, 후대에는 욕망을 실현하는 존재로 재현한다.

다음으로 「도화녀 비형랑」의 시를 읽어보자.

성제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형랑의 집이 이곳이로다.
날고 뛰는 잡귀들아
이곳에는 아예 머물지 말지어다.

聖帝魂生子
鼻荊郎室亭
飛馳諸鬼衆
此處莫留停 (『三國遺事』 101)

이 시는 성제의 “혼”이 낳은 신비롭고 초월적인 인물인 비형랑의 집에 글을 써서 붙인 곳에는 한명의 잡귀도 들어올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을 피력한다. 이 신비로운 도깨비의 이미지는 이승과 저승의 연결고리점이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간지점이며 신원사의 다리건축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단군신화』에서 원형을 제시했듯이, 「도화녀 비형랑」에서는 도깨비의 이미지는 욕망을 초월하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 욕망초월 이미지는 후대에는 욕망의 이미지로 재현한다.

「도화녀 비형랑」에서 비형랑은 죽은 왕과 도화녀의 사이에서 태어나서 도깨비와 함께 다리 건설을 하고, 길달처럼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도망을 치는 자들을 혼내줌으로써 그 시대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다. 비형랑은 하루 사이에 다리도 건설할 수 있는 건축기사도깨비로 등장한다. 「서동요」에서 하룻밤에 백제의 궁궐에서 신라의 궁궐로 모든 보물을 옮긴 것처럼, 우리민족은 하루 만에 기적을 베풀어 줄 대상이 필요했다. 당시에 사람들은 도깨비를 자신의 소망의 대상으로 투영시키고, 시대에 부합되게 도깨비의 이미지로 재현한다. 「도화녀 비

형량」의 작품의 맥은 「처용가」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처용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처용가」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다. 「처용가」에 대해 신화 「무가」 중의 일부로 보는 견해, 불교적인 주문이라는 견해, 주술 기원의 견해, 주술 무가라는 견해, 민요격 향가라는 견해 등이 제기되어 왔다. 박일용은 「처용가」는 가상적 청자로서 역신(疫神)을 염두에 둔 방백적 노래로(박일용, 25)보고 있다. 향가 작품에서 주술적 노래는 「처용가」이다. 향가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즐기고 불렀던 노래이다. 그러나 「처용가」는 지배층 문학이라기보다는 서민적인 성향이 짙은 노래이다. 필자는 「처용가」를 도깨비의 노래로 본다.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보면 우리민족은 무속과 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왜래 종교인 불교가 들어오면서 무속은 불교와 습합을 하였다. 불교에서도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는 “나찰(도깨비)은 남의 가문의 여자를 빼앗아 오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나찰은 아차처럼 함께 선신의 모습과 악신의 모습으로 더 자주 나타난다.”(박기용, 149-180)

한국에 도깨비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불교가 전래되어 왔을 때 들어왔다. 박기용은 “도깨비란 용어는 불교문화가 융성하던 시기에 아차”도끼“와 관련성(박기용, 139-163)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도깨비는 불법을 수호하거나, 소원을 성취해서 부자가 되거나 하는 대상이었다. 우리민족은 부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푹푹푹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화녀와 비형량」에서 도깨비들이 하룻밤에 신원사 다리를 건설하는 것처럼 후대에 도깨비는 선한 도깨비와 악한 도깨비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난다. 「도화녀 비형량」에서 비형량이 말을 안 듣는 도깨비는 징벌하고 질서를 잡기도 한다. 후대로 오면서 민가에 도깨비는 장난이 심해지고, 변덕스럽고, 사람을 골탕 먹이고, 놀리기도, 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설화속의 이야기는 신라 제49대 왕인 헌강왕이 개운포(開雲浦: 지금의 울산)에 나가 놀다가 물가에서 쉬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었다. 동해의 용이 기뻐하여 이내 일곱 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 중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에 들어가 정사를 도왔는데, 그가 바로 처용이다. 그는 밤늦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니 역신이 그의 아내를 범함을 보고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 처용이 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 역신을 몰러가게 했다는 것이다. 처용은 가무에 능했던 인물이다. 「처용랑 망해사」를 읽어보자.

「처용랑 망해사」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닐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겼으니 어이하리

「處容郎 望海寺」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盼隱吾下於叱古
 二盼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三國遺事』 183)

이 시에 “밝은 달”, “밤”, “노니다”, “들다” “들”, “넷” “네해”, “뉘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도 처용이 노하지 않고 불렀다는 노래이다. 처용이 밝은 달의 세계에서 노닐었지만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겼으니 어이하리”라는 구절은 처용의 고민을 드러낸다. 처용가의 노래는 처음에는 행복한 이미지에서 후반에는 비극의 이미지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비극적 상황을 처용은 다시 행복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처용은 역신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한다. 여기에 처용의 관용에 역신은 깊은 감동을 받고 몰려난다.

그런 뒤 역신은 처용의 화상을 그려서 벽에 붙여놓거나 공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만 보고도 절대로 그 집에는 범접치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된다. 처

용은 초월적이고 관용적인 존재이다. 어느 누가 아내의 간통장면을 목격하고도 분노하거나 헐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처용은 역신을 보고도 초연스럽게 노래와 춤을 추며 물러났다. 이를 통해서 처용의 모습은 욕망을 초월하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었다. 이처럼 「처용가」는 처용처럼 욕망을 초월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주의 합일의식을 드러냈다.

IV. 결론

요정과 도깨비는 동서에 널리 회자되어 왔다. 예이츠와 일연은 동시대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아일랜드와 한국에 전통문예부흥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설화를 복원하고 원형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아일랜드의 요정과 한국의 도깨비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고 기록한 점으로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은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정신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던 점이다.

예이츠는 아일랜드의 설화 속에 보고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대로 받아 적었으며 이것을 시 창작으로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그는 고대의 아일랜드의 풍요로운 상상의 세계를 꿈꾸었으며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그는 요정의 세계를 열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일연은 도깨비의 설화를 통해서 한국의 도깨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담았다. 「도화녀 비형랑」에서는 도깨비가 다리를 건축하는 건축기사로 나타났다. 「처용랑 망해사」에서는 처용의 아내를 범했는데도 처용은 춤을 추고 물러났다. 처용이 역신에게 관용을 베풀어 욕망을 초월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두 시인은 요정과 도깨비의 이미지를 노래한 시인이다. 요정과 도깨비는 무리를 지어 다니며 춤을 춘다. 그들은 춤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표현한다. 두 시인은 인간과 초현실적인 존재 사이의 너머의 세계에 대한 조화를 열망과 욕망 초월 이미지로 고스란히 작품에 담아내었다. 두 시인은 설화와 전설을 작품의 제재로 사용하여 아일랜드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부흥시키는 데에 상당한 일조를 하였다.

Works cited

- Albright, Daniel. *W. B. Yeats: The Poems*. London: Everyman's Library, 1992.
 [Yeats, trans. The Yeats Society of Korea.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Seoul: Dongin, 2011.]
- 에이츠, 한국에이츠학회역. 『에이츠 시 전집』. 서울: 동인, 2011.
 [The Yeats Society of Korea. *W. B. Yeats's Plays*. Seoul: Hanbit Publishing,
 2016.]
- 『W.B. 에이츠 회곡』 1권. 서울: 한빛문화, 2016.
- [Ilryeon, trans. Kim, BongDoo. *Samgukyusa* Seoul: Gyomoonsa, 1995.]
- 일연, 김봉두 편역, 『三國遺事』. 서울: 교문사, 1995.
 [Yeats, W.B. trans. Suh, Hyesook. *Celtic Dawn*. Paju: Woongjin Thinkbig, 2009.]
- 에이츠, 서혜숙 옮김, 『켈트의 여명』. 파주: 웅진씽크빅, 2009.
- [Suh, Hyesook. “A Study on Irish Fairies in Yeats Fairy and Folk Tales in
 Ireland.” *The Yeats Journal of Korea* 25 (2006): 89-118.]
- 서혜숙, 「아일랜드 요정담과 민담에 나타난 아일랜드 요정의 세계」, 『한국에이츠
 저널』 25 (2006), 89-118.
- [Suh, Hyesook. “*W. B. Yeats and Irish Fairy Tales*.” *The Yeats Journal of Korea*
 18 (2002): 25-54.]
- 서혜숙, 「에이츠와 아일랜드 요정 이야기」, 『한국에이츠 저널』 18. 2002, 25-54.
- [Kim, Yolkyou. *Dokkaebi's True Color, Horny Korea*. Paju: Sakyejul, 2010.]
- 김열규. 『도깨비의 본색, 빨난한국인』, 파주, 사계절출판사, 2010.
- [Kim, Jangdae. *A Study of Korean Dokkaebi*. Paju: Kookhak Publications 1994.]
- 김종대. 『한국의 도깨비 연구』. 국학자료원, 1994.
- [Charles Squire, Nha YoungKyun, and Jeon Sooyong · *Celtic Myths and Legends*.
 Seoul: Taurusbook, 2016.]
- 찰스 스콰이어, 나영균 · 전수용 옮김. 『켈트 신화와 전설』. 서울: 황소자리출판사, 2016.
- [Morita, Jimmy. trans. Kim, KyungWha. *A Trip to the Island of Fairy and
 Legendary Britain*. Seoul: Purungil, (2002).]
- 모리타 지미, 김경화 옮김. 『요정과 전설의 섬 브리튼으로의 여행』. 서울: 푸른길,
 2002.

- [Park, Kiyong. “A Study on the Origin of Dokkaebi in Buddhist Folktales.” *Korean Language* 63 (2014): 149-180.]
- 박기용, 「불교 설화에 나타난 도깨비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말글』 63집, 우리말글학회, (2014): 149-180.]
- [Park, Kiyong. “A Study on the Etymology of ‘Dokkaebi’ Based on Buddhist Tales.” *Korean Language* 67 (2015): 139-163.]
- 박기용, 「불교설화로 본 도깨비 어원 연구」, 『우리말글』 67집, 우리말글학회, (2015): 139-163.
- [Park, IlYong. “The Symbol of Yuk-Sin and the Impression System of *Cheyong-Ga*.” *Classical Literature Research* 49 (2016): 5-35.]
- 박일용, 「역신의 상징적 의미와 <처용가>의 감동 기제」, 『古典文學研究』 49 (2016): 5-35.
- [Cho, Dongyu and Chung, Okhee, “William Butler Yeats and Indian Thoughts.” *The Yeats Journal of Korea* 16 (2001): 7-34.]
- 조동열 · 정옥희, 「에이츠의 인도사상 수용」, 『한국에이츠 저널』 16 (2001): 7-34.
- [Yu, Yukrye. “The Transformation Aspect of Humans in *Heungboojeon*.” *Yongsan Journal of East Asian Cultural Studies* 25 (2016): 195-216.]
- 유육례, 「<흥부전>의 인간의 변이양상」, 『동양문화연구』 25 영산동양문화연구원, (2016): 195-216.

Manuscript peer-review process:

receipt acknowledged: 26 Feb. 2018.

peer-reviewed: 19 Mar. 2018.

revision received: 26 Mar. 2018.

publication approved: 16 Apr. 2018.